

# 전쟁과 식민의 기억

: 히노 게이조의 문학을 중심으로 \*

김계자 \_ 한신대학교 대학혁신추진단 조교수

## 목 차

1. 머리말
2. 패전 직후의 단상과 문학의 출발점
3. 히노 게이조는 베트남을 보았는가
4. 귀환 체험과 부정과 상실의 문학
5. 부유하는 사람들과 경계의 '집'
6.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히노 게이조가 베트남전쟁을 취재하고 돌아와 소설을 쓰기 시작하여 일본의 패전과 귀환체험, 그리고 식민지 조선의 기억과 조우하는 과정에서 전쟁과 식민의 기억이 새롭게 환기되고 형상화되는 방식과 그 의미를 살펴본 것이다.

히노 게이조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식민지 조선으로 이주하였고, 패전 후에 일본으로 귀환, 1960년대에 다시 서울로, 그리고 베트남전쟁 취재를 위해 특파원으로 두 차례 베트남을 다녀오는 등, 그의 이력이 이동이 계속된 점이 특징적이다. 그 영향으로 그의 문학은 이동에 따른 상대적인 장소성과 부유하는 인간의 존재적 문제에 천착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3041085)

하는데, 다른 귀환자 문학과는 다르게 내면의 정체성이나 귀속의 장소로 수렴되지 않고, 주체와 공간 사이의 경계의 확장과 새로운 관계성의 구성을 '집'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의 문학적 형상화로 보여주고 있다.

패전 직후의 단상에서 문학 활동을 시작하여 식민지 조선에서의 기억과 귀환 체험을 소설화한 초기작부터 「차안의 집」과 「그 저녁놀」에 이르기까지 작자 스스로 '사소설'이라고 언급한 일련의 작품 속에서, 계속된 이동이 만들어낸 식민지 조선에서의 기억 환기가 새로운 관계성의 공간으로 형상화된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 주제어

히노 게이조, 귀환서사, 식민지 조선, 기억, 베트남전쟁, 아쿠타가와상

---

# 1. 머리말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식민지와 점령지였던 곳에서 일본 '본토'로 돌아간 일본인의 이른바 '귀환(引揚げ)'<sup>1)</sup> 체험을 집단의 아이덴티티로서 동일화하고 재구성하여 다른 집단과 구분하는 방식은 자칫 특정 형태의 집단기억으로 한정하여 유형화하거나 논의를 단순화할 위험이 있다. 물론, 가토 기요후미(加藤聖文)가 전후 일본의 귀환 실태를 정리한 『해외귀환연구(海外引揚げの研究)』의 서두에서 밝히고 있듯이, 미·소 냉전이나 중·소 대립, 중국의 국공(國共) 대결을 둘러싼 국제정치가 여러 지역의 귀환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다시 미군 점령 하의 일본 국내에 있던 사람들과의 의식에 차이를 만들었기 때문

---

1) 본고에서는 일본어 '引揚げ'를 '귀환'으로 번역한다. 전후 일본문학의 식민지 경험 연구를 해 온 오미정은 최근의 한국문학이나 한국사 연구에서 '귀환'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패전으로 인하여 식민지적 지배관계가 해체되고 모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상황을 염두에 두면 '귀환'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오미정, 「'귀환'체험과 기술의 문제-아베 고보 『짐승들은 고향을 향한다』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51집, 2010.12, p.231). 본고는 이를 수용하여 '引揚げ'의 번역어로 '귀환'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에<sup>2)</sup>, 전후 일본사회에서 ‘귀환자’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논의하는 것은 유효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가토의 위의 책에서도 보여주듯이, 귀환한 지역이나 시기, 귀환자의 신분 등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겪은 체험의 형태와 과정을 일괄해서 보기 어려운 점도 있어서 ‘귀환자’라는 개념으로 분류하여 동일한 아이덴티티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귀환’을 키워드로 하여 전후 일본을 논의하는 데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바로 논의의 기점(起點)을 1945년 8월 이후로 한정함으로써 전후 일본사회에 전전(戰前)과의 단절을 초래하고, 그 결과 전전의 식민과 전쟁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한 역사인식의 왜곡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문학의 형태로 유통되는 귀환 서사는 냉전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심한 지역으로부터 귀환한 고난과 피해의 체험을 전경화(前景化)하고 반복함으로써 전전의 역사를 직시하지 않고 회피를 넘어 부정의 레토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전후 일본에서 고난과 피해의 집단체험으로 소비되고 유통되어 온 전형적인 귀환 서사<sup>3)</sup>의 형태를 따르지 않는 소설가 히노 게이조(日野啓三, 1929~2002)의 문학을 통해, ‘귀환’이라는 부(負)의 기억이 새롭게 환기되고 형상화되는 방법과 그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히노 게이조가 본격적으로 문학 활동을 시작하기까지의 이력을 살펴보자. 히노는 세계대공황의 해인 1929년에 도쿄에서 태어나, 1934년 5세 때 가족이 조선으로 건너와 경상북도 대구에서 살았다. 자필 연보<sup>4)</sup>에 의하

2) 加藤聖文, 『海外引揚の研究-忘却された「大日本帝国」』, 岩波書店, 2020.11, p.2.

3) 대표적인 예로 후지와라 데이(藤原てい)가 자신의 귀환 체험을 쓴 에세이 『흐르는 별은 살아있다』를 들 수 있다(藤原てい,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日比谷出版社, 1949).

4) 日野啓三, 『年譜』, 『天窓のあるガレージ』, 講談社文芸文庫, 2017, pp.248-260.

면, 조선으로 이주할 때 “기차와 연락선을 갈아타며 간신히 도착한 이향(異鄉)의 저녁 어둠의 공포”를 느꼈고, 7세 때 밀양으로 옮겨 살던 때에 “기이한 눈으로 차갑게 바라보던 조선인들의 “타자의 눈”을 항상 느꼈다”고 술회하고 있다. 1942년 13세 때 은행에 근무하던 아버지가 본점에서 근무하게 되어 경성으로 이사해 용산중학교를 다녔다. ‘내지’의 구제(舊制) 고교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1945년 16세 때 패전을 맞이했다. 그리고 1945년 11월에 일본으로 귀환하여 아버지의 고향인 히로시마(広島) 현 후쿠야마(福山) 시에 정착했다.

히노 게이조는 12년간에 걸친 식민지 조선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일본으로 귀환한 이후, GHQ의 지령으로 비행기 생산이 금지되어 비행기 설계기사가 되고 싶었던 꿈을 단념하고 도쿄대학 사회학과에 진학했다. 이후, 전후문학과 도스토예프스키 문학에 심취해 문예평론을 발표했다. 1952년 23세 때 요미우리신문사(読売新聞社)에 취직하여 외신부를 담당하며 문학 비평가들과 교류한다. 그리고 전후 10년이 지난 1955년에 「폐허에 대하여(焼跡について)」(『近代文学』1955.6)라는 짧은 에세이를 발표했는데, “나에게 최초의 리얼한 문학적 문장”이라고 자필연보에서 회고하고 있다. 이후의 작품에서도 패전 직후의 단상이 ‘폐허’(焼跡, 廢墟)라는 말로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히노 게이조는 패전 후 일본으로 돌아간 뒤에 1960년에 이승만 독재정권이 붕괴된 직후의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다. 요미우리신문사 특파원 자격으로 와서 7개월간 서울에 머물렀다. 15년 만에 찾은 서울에는 한국전쟁의 파괴의 상흔이 남아 있어 패전 직후의 도쿄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당시의 심리상태를 연보에 적고 있다. 히노는 서울 특파원 생활을 마치고 일본으로 귀국한 뒤에 이혼한다. 그리고 서울에서 알고 지낸 여성을 일본으로 데려가 재혼했다. 1964년에 전쟁 중인 베트남에 상주특파원으로 파견되어 취재 기

사를 써서 일본으로 송고(送稿)하는 생활을 했다. 일본에서는 징병 직전에 종전이 되어 전쟁을 직접 체험한 적이 없던 히노는 베트남에서 전장을 목도하고 소설을 쓸 결심을 한다.

병사도 민중도 비참함이 극에 달하고, 나도 설 새 없이 취재 송고로 심신이 모두 망가지고 있었다. 이 녹아드는 현실감각은 르포르타주도 평론도 아닌 소설의 형태로밖에 쓸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고, 소설을 쓸 결심을 하고 귀국했다.<sup>5)</sup>

베트남에서 8개월간 취재를 하고 돌아온 히노는 1966년에 잡지 『중앙공론(中央公論)』에 베트남전쟁에 관한 르포르타주를 써 달라는 의뢰를 받고 「나는 베트남을 보았는가(私はベトナムを見たか)」라는 글을 썼지만, 잡지사는 그의 글에 대하여 르포가 아니라 “망친 소설(小説のできそこない)”이라고 혹평하고 게재하지 않았다<sup>6)</sup>. 이에 히노는 평소 즐겨 읽던 오오카 쇼헤이(大岡昇平)의 『들불(野火)』에서 가져온 듯 보이는 ‘노비 게이(野火啓)’라는 필명으로 첫 단편소설 「건너편(向う側)」을 발표했다.

히노 게이조는 첫 소설을 발표한 1966년 같은 해에 르포르타주 풍의 장편 에세이 『베트남 보도-특파원의 증언(ベトナム報道-特派員の証言)』(現代ジャーナリズム出版会, 1966)을 출간했다. ‘르포르타주(reportage)’는 보통 어떤 사건이나 현장체험을 사실에 바탕을 두고 기록하거나 보도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데, 히노의 『베트남 보도』는 자신의 사고나 인식을 성찰하거나 사회비평의 내용이 많아 르포르타주 풍의 에세이라고 한 것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그리고 1967년에 베트남전쟁 연재취재를 위해 다시

---

5) 日野啓三(2017), p.252.

6) 日野啓三(2017), pp.252-253.

남베트남으로 가는데, 이때는 이미 베트남전쟁의 성격이 내전에서 본격적인 국제전으로 바뀐 상태였고, 생사를 건 베트남전쟁 취재를 마치고 돌아와 본격적으로 창작활동에 뛰어들게 된다.

이상이 히노 게이조가 본격적인 문학 활동에 들어가기까지의 약력인데, 이동(移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그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식민지 조선으로 이주하였고, 패전 후에 일본으로 귀환, 1960년대에 다시 서울로, 그리고 베트남에 특파원으로 두 차례 방문하고 일본으로 돌아와 소설을 쓰며 조선에서의 기억과 조우한다. 동일하게 재조일본인 2세의 이력을 갖고 있는 가지야마 도시유키(梶山季之)나 고바야시 마사루(小林勝), 모리사키 가즈에(森崎和江)와 비교해 봐도 히노 게이조의 이력에는 ‘이동’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히노 게이조의 이동에 작동하고 있는 세 가지 키워드, 즉 식민지 조선 체험, 패전과 귀환, 그리고 베트남전쟁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들 키워드를 약력의 시간상으로 나열하지 않고 문학작품에서 형상화된 순서로 재배열하면, 대체적으로 베트남전쟁 → 패전과 귀환 → 식민지 조선 체험의 역순서가 될 것이다. 식민지 조선에서 보낸 유년시절의 기억을 불러내는 데에 귀환으로부터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는 그만큼 식민지 조선에서의 기억과 맞닥뜨린다는 것이 그에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패전과 귀환의 체험이 유년시절의 기억에 간섭하여 환기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960년대에 이어진 서울과 베트남으로의 이동을 통해서 드디어 과거의 기억과 조우하며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히노는 왜 베트남전쟁을 취재하고 돌아와 일본의 패전과 자신의 귀환체험을 소설로 쓰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맞닥뜨린 식민지 조선의 기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신의 체험에 바탕한 초기작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 2. 패전 직후의 단상과 문학의 출발점

히노 게이조는 1934년 5세 때부터 식민지 조선에서 거주하다가 1945년 11월에 인양선을 타고 귀환하였다. 그는 1950년대 초반부터 잡지 『근대문학(近代文学)』에 몇 편의 평론을 발표하며 전후문학자들과 교류했는데, ‘정치와 문학’ 논쟁에서 출발하여 전후문학과 주체성 문제를 비평하는 과정에서 ‘허점(虛点)’이라는 개념을 꺼내들었다. ‘허점’은 히노가 한자를 조합하여 만든 말로, 1952년에 발표한 평론 「허점이라고 하는 지점에 대하여(虛点という地点について)」(『文学界』, 1952.12)에서 유래한다.

히노의 초반 평론 활동을 고찰한 야마노우치 쇼시(山内祥史)가 ‘허점’의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허점’은 히노가 ‘비재(非在)’와 ‘존재(存在)’ 사이의 제삼의 영역으로 가정한 개념으로, 사물의 가치와 의미를 근원적으로 묻기 위하여 이 개념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추상’이나 ‘존재’, ‘인식’의 개념을 추구(追究)한 과정이 ‘허점’으로 결정화(結晶化)되었다고 평가했다.<sup>7)</sup> 그리고 “자기분열과 모순을 역으로 창조의 계기로 삼으려는 역설적 각오”에서 ‘허점’의 사상이 나온 것이라고 보았다.<sup>8)</sup> 그런데 존재의 근원에 대한 물음과 창작에 대한 각오가 왜 ‘허(虛)’라고 하는 공백(空白)의 지점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추상화된 제삼의 공간을 왜 비어있는 공백의 상태로 표현한 것인지, 히노의 초기 문학작품을 통해 추론해 보겠다.

7) 山内祥史, 「近代文学」誌上の日野啓三——一九五一年まで——, 『近代文学試論』 48, 2010.12, p.45.

8) 山内祥史, 「日野啓三・昭和二十七年の文業」, 『近代文学試論』 49, 2011.12, p.32.

일본의 패전을 식민지 조선에서 맞이한 히노가 일본으로 귀환한 이후에 목도한 것은 폐허가 된 잔해터미였다. 1955년에 발표한 에세이 「폐허에 대하여」에서 패전 직후의 단상(斷想)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자신의 눈으로 사물을 볼 시기가 되었을 때, 주위는 폐허뿐이었다. (중략) 아마 전전(戰前)의 생활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폐허에 오래되고 좋았던 시절의 시체밖에 보지 못했을 것이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것밖에 그들은 현실성을 느끼지 못했을 터이다. 반대로 우리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이 전부였다. 아름답다거나 또는 유용한 다양한 형식과 구도를 잃고 그저 무의미하게 뒹굴며 드러난 잔해터미, 불탄 철판의 검붉은 거죽, 붕괴된 빌딩 벽에 남은 검은 불꽃 자국. 그것이 그저 거기에 있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존재증명일 수밖에 없는 존재의 불가사의의 분명함.<sup>9)</sup>

전전의 일본에 대한 기억이 없는 히노에게 패전 직후에 돌아온 일본에서 목격한 폐허는 “그저 무의미하게 뒹굴며 드러난 잔해터미”일 뿐이었다. 그에게 패전 직후의 일본은 존재하지 않는 부정형으로밖에 그 존재를 입증할 수 없는 역설이 현실화된 공간이었다. 애초에 전전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존재하던 것이 무너져 내린 기억으로서의 공간이 아니다. 전후 일본에 대한 히노의 인식과 사상은 이러한 ‘폐허’의 존재하지 않는 부정의 공간에서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경(憧憬), 체념, 환멸, 자포자기, 절망감 같은 감상(感傷)으로 자신을 위로할 방법조차 나는 몰랐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은 폐허에 있다”<sup>10)</sup>고 이야기한다. 즉, 히노가 귀환한 일본은 ‘조국’이나 ‘고향’과 같은 귀속되어야 할 의미를 갖고 있는 원풍경(原風景)으로서의 기억의 장소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패전 직후의 단상은 히노의 초기 작품에 특

9) 清岡卓行 外, 『昭和文学全集 第30卷』, 小学館, 1988, p.427.

10) 清岡卓行 外(1988), p.428.

징적으로 나타나 있다. 다음은 그가 처음으로 쓴 소설의 한 장면이다.

그곳처럼 긴 식민지화와 내전이 계속된 현지의 인간(土地の人間)이란 우리 같은 섬나라의 온실에서 자란 사람들과 달리 성격적으로 미묘한 굴절과 음영이 많아서 간단히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디다만, 그만큼 매우 흥미로운 인간이 있습니다. 그 남자도 그러한 인간의 한 명이었습니다. 결코 되는 대로 적당히 하는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sup>11)</sup>

위의 대목을 읽은 독자는 ‘그곳’을 어디로 연상할까? 밑줄 친 부분에 35년간의 일제강점기를 보내고 한국전쟁을 겪어야 했던 한반도를 대입하여 읽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읽어갈수록 ‘현지의 말(土地の言葉)’, ‘이 지역 특유의 조미료(この土地獨得の調味料)’, ‘이 내전의 수도(この内戰の首都)’와 같은 지시어가 나오고, ‘해방구(解放区)<sup>12)</sup>나, ‘야자나무숲’, ‘정글 샌들’, ‘고엽제’와 같은 단어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조합해 보면 전쟁 중인 베트남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점차 눈치채게 된다.

이 소설은 히노 게이조가 1966년에 베트남전쟁 취재를 마치고 돌아와 소설로는 처음으로 발표한 「건너편」이라는 단편이다. 인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소설에는 고유의 지명이 나오지 않는다. ‘건너편’이라는 제명 자체도 특정의 공간을 지칭하지 않고, 화자(話者)의 위치에 따라 가리키는 대상이 상대적으로 달라지는 말로, 화자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초점화하고 있다. 이렇게 고유의 지명을 드러내지 않고 화자의 시선을 따라 이야기하는 방식은 이후의

11) 池澤夏樹 個人編集, 「向う側」, 『日野啓三 開高健』(『日本文学全集』21), 河出書房新社, 2015, p.15. 밑줄은 인용자에 의함. 「건너편(向う側)」의 초출은 『季刊文芸誌 審美』(1966.3)임.

12) ‘해방구’는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NLF)의 지배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한국이나 중국에서도 사용된 말이기 때문에 이 말 단독으로는 베트남으로 단정할 수 없다.

소설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당분간 이어진다. 고유의 국가명이나 지명을 쓰는 대신에, ‘이곳’, ‘저곳’, ‘이곳의 정부’, ‘내가 자란 바다 저쪽’, ‘해협 저쪽’ 등과 같은 표현이 산견된다. 그리고 일본 바깥에서 일본을 칭할 때도, ‘저 땅’이라고 표현한다.

작자는 왜 고유의 지명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을까? 기실 구체적인 묘사나 문맥상 해당 장소가 베트남이나 한국, 혹은 일본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특별히 공간을 추상화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굳이 고유의 지명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시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도 고유의 지명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은, 다시 말하면 고유명사를 의식적으로 소거(消去)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위의 인용을 처음에 한반도를 연상하며 읽어가다 후반에 베트남이 배경인 사실이 드러났을 때의 당혹감이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식민지에서 내전으로 이어진 근현대사가 한반도와 베트남이 비슷하다는 단순한 논리는 해명이 안 된다. 이러한 표현은 작자가 하나의 대상에서 고유성을 소거하여 특정하게 한정하지 않고 복수의 사상(事象)을 중첩시켜 보는 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히노의 작품에는 전쟁 중인 베트남에서 일본의 전쟁을 떠올리고, 서울을 연상하며 식민지 조선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은 중첩되고 연속되는 인식의 회로가 작중인물을 통해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작품의 추상화된 공간성은 매우 상징적이다.

「건너편」의 텍스트 공간이 전쟁 중인 베트남으로 설정되어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시공간을 특정하지 않고 ‘건너편’이라는 상대적인 의미로밖에 존재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형상화하는 방식은 히노가 패전의 단상에서 언급한 “존재하지 않는 부정의 공간” 표현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건너편에 간다(向う側に行く)”는 말만 남기고 행방불명된 전임 특파원을 찾아다니던 ‘나’가

새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글 속에서 문득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있는데, 그 깨달음은 바로 자신이 찾아 헤매고 다니던 ‘건너편’이 다름 아닌 현재 서 있는 “폐허의 공터”라는 자각이었다.

폐허의 공터에 서서, 여기가 건너편이다,고 나는 살짝 소리 내어 말해 보았다. 아직 뜨거운 잿더미 사이에 초라한 향아리가 한 개 뒹굴고 있었다. 무심코 발끝을 대자,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도 없이 무너졌다. 보이지 않는 커다란 것이 내 주변에서 무너진 기분이 들어, 공허함 바로 그것이 분명히 있다(むなしさそのものというものが確かにある)고 말하면 과장이라고 해도, 그것은 있다, 설령 지금 여기에 없다고 해도, 이러한 실감이 바싹바싹 주위의 정글의 침묵과 그 사이의 텅 빈 마을의 투명한 공간에서 배어 나왔다.<sup>13)</sup>

“폐허의 공터”를 베트남의 정글 대신에 패전 직후의 일본으로 치환해서 읽어도 위화감이 들지 않는다. 화자는 고유의 지명을 소거함으로써 전쟁 중인 베트남에 패전 직후의 일본을 의식적으로 중첩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공허함’은 폐허에서 느낀 소회의 표현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과거에 대한 동경이나 현실에 대한 절망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자는 허무하고 덧없음을 탄식하는 대신에, 공허함이 여기에 ‘있음’을 강조한다. 그래서 소설의 종반에 ‘건너편’을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여기가 건너편이다”고 하는 발상의 전환을 그려 넣고 있는 것이다. 「건너편」은 다음과 같이 끝맺고 있다.

이것은 이쪽(지금은 건너편에 있다)의 말이다. 저쪽에서는 입에 담아서 안 된다. 이상하게 불안은 없었다. 나는 차분히 시계를 보고, 아직 돌아갈 버스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국도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걸었다.(p.29)

13) 池澤夏樹 個人編集(2015), p.29.

바로 전까지만 해도 ‘이쪽(こちら側)’에서 ‘건너편(向う側)’을 향하고 있었는데, 순간 “지금은 건너편에” 있고 전도된 위치에서 다시 ‘저쪽(あちら側)’을 바라보며 “돌아갈”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추상적이고 난해한 결말이다. 공간이란 고정된 위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위치에 따라 상대적인 장소성으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동에 의해서 그 의미가 유동적이고 때로는 전도되는 것임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히라타 유미(平田由美)는 재일조선인 2세와 식민자 2세에 공통으로 “장소와 자기존재에 대한 어긋남의 의식”이 보인다고 지적하고, 이를 “‘홈(home)’이 ‘어웨이(away)’이고, 그 역도 또한 진실이거나 혹은 어느 쪽의 명제도 동시에 거짓인 비귀속적(非歸屬的)인 상태”라고 언급하며, “두 개의 장소의 치환가능성(replaceability)을 가시화하는 위치”로 설명했다.<sup>14)</sup> 장소의 전도와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히라타가 지적한 대로 재조일본인과 재일조선인은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식민자로서 피식민지로 이동했다가 패전 후에 귀환하는 것과, 피식민지인이 식민 본국으로 이주하여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것은 동일선상에서 논의하기 어렵다. 제국과 식민지라는 절대적인 권력의 비대칭 관계 속에서 양자의 이동 원인과 귀속에 대한 지향성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히라타 유미의 논고는 재일조선인의 분석에 치우쳐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식민자 2세의 경우에 대입해서 생각하면 설득력이 있다. 즉, 우월적인 식민자로서 일본에서 조선으로 이동한 후에 패전국의 국민으로서 다시 일본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체득한 상대적인 장소성은 우월한 위치에서 전략하여 폐허의 현실과 마주하기 때문에 의식과 가치가 전도되는 존재적 문제를

---

14) 平田由美, 「“他者”の場所—「半チョッパリ」という移動経験—, 伊豫谷登士翁・平田由美編, 『「帰郷」の物語／「移動」の物語』, 平凡社, 2014, pp.29-31.

수반한다. 히노의 작품에 다른 곳을 향하는 시선이 지속적으로 표현되는 것도 현재의 위치에 대한 부정과 전도된 가치의 복원을 향한 무의식의 발현일 수 있다.

이와 같이 히노 게이조가 이동에 따른 상대적인 장소성과 자기존재의 문제를 의식하게 된 것은 식민지 조선과 전후 일본이라는 시공간에서 상대적인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이라는 제삼의 공간에서 더욱이 과거에 전쟁을 체험하지 않은 그가 현지에서 전쟁을 취재하며 자신의 현재와 과거를 돌아보게 된 것이다. 히노가 베트남전쟁을 통해 얻은 성찰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음에서 장편 에세이 『베트남 보도-특파원의 증언』(이하, 『베트남 보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 3. 히노 게이조는 베트남을 보았는가

히노 게이조의 소설에는 고유의 지명이 거의 나오지 않지만, 장편 에세이 『베트남 보도』에는 취재 르포의 성격상 베트남 관련 지명이나 인명, 조직은 물론이고, 일본이나 한국의 지명도 빈출한다. 베트남전쟁을 취재하면서 한국전쟁을 간단히 언급하거나 베트남과 서울을 비교하고, 현재의 서울과 과거 식민지 조선의 기억을 왕래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히노는 왜 자신이 유년시절을 보낸 곳에서 일어난 한국전쟁보다 베트남전쟁에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

히노가 한국전쟁에 관하여 직접 언급하고 있는 저술은 없다. 에세이나 소설 속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중에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이다. 그는 1964년에 발생한 퉁킹만 사건으로 인해 미소 냉전에서 미중 대립으로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일본이 베트남전쟁에 연루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거리적으로는

멀지만 심리적으로는 조선전쟁보다 가까운 위기”<sup>15)</sup>를 느껴 베트남전쟁을 주시했다고 『베트남 보도』에서 적고 있다. 기실 이러한 국제정치적 인식만으로 그가 한국전쟁보다 베트남전쟁을 주목한 속내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히노 게이조와 동세대이고 마찬가지로 식민지 조선 체험을 갖고 있는 재조일본인 2세 고바야시 마사루(小林勝, 1927~1971)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다.

고바야시 마사루는 1952년에 ‘스이타사건(吹田事件)’을 비롯하여 일본을 기지로 삼아 미군이 한국전쟁에 관여하는 문제를 비판하며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이 일으킨 무력 반전투쟁에 참가하여 데모를 벌이다 징역 1년의 실형을 살았다. 이후, 그는 단편 「가교(架橋)」(『文学界』, 1960.7)를 발표했는데, 일제강점기에 아버지가 일본인에게 죽임을 당한 조선인 청년과, 전쟁 말기에 소련군과 조선인에게 아버지가 끌려가 총살을 당한 일본인 소년이 일본공산당 조직에 관여되어 함께 한국전쟁 반대 투쟁을 벌이는 이야기이다. 두 작중인물은 함께 투쟁하는 가운데 서로 간에 얽힌 과거의 감정과 분노를 털어낸다. 고바야시 마사루는 실제로 한국전쟁 반대투쟁에 참여했고,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갈등과 화해를 그리려고 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sup>16)</sup> 이 작품은 다소 낭만적이고 당위적인 결말이 작위적인 측면이 있지만, 고바야시가 반전투쟁과 작품을 통해 보여준 한국전쟁에 대한 관심은 식민지 조선 체험이 있는 재조일본인 2세로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인지도 모른다.

그에 비하면 히노 게이조는 한국전쟁에 관한 언급은 거의 없고, 대신에

15) 日野啓三, 『ベトナム報道—特派員の証言』, 現代ジャーナリズム出版会, 1966, p.30. 이하, 『베트남 보도』의 인용은 본문에 쪽수만 명기함.

16) 신승모는 고바야시 마사루의 「가교」를 “동아시아의 미래적 ‘가교’를 추구”한 작품으로 평가했다(신승모, 「고바야시 마사루 문학의 역사적 ‘가교’로서의 가능성」, 『재조일본인 2세의 문학과 정체성』, 아연출판부, 2018, p.138).

베트남전쟁 취재 체험을 계기로 본격적인 문학 활동을 시작한 점이 특이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시대에 아시아에서 치러야 했던 두 차례의 열전이 전후 일본인에게 의미하는 바는 물론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다. 또, 한국전쟁이 한창인 1952년에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주권이 회복되었고 전쟁 특수로 경제가 성장한 점을 생각하면, 전후 일본사회에서 한국전쟁을 국제정세의 위기로 실감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베트남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실은, 그가 베트남전쟁을 체험했기 때문에 베트남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한국과 일본에서 상대적인 거리를 두고 있는 공간적 요인과, 식민과 패전의 당사자로서의 체험에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간접적 방관자로서 베트남전쟁을 지켜보는 체험이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히노는 베트남전쟁을 지켜보며 패전과 귀환 이후에 애써 외면해 온 과거 일본의 전쟁과 귀환 체험의 기억을 떠올린다. 그리고 ‘아시아’라는 범주를 비롯하여 취재기자로서의 보도의 객관성과 인식, 표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화두를 전개하고 있다.

히노는 『베트남 보도』에서 베트남과 한국을 비교하거나 종종 범위를 아시아로 확대하여, 근대화에 늦은 후진성과 그로 인한 식민지화, 그리고 결과적으로 초래된 부패한 정권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후진국의 동란 보도가 구미 선진국의 논리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베트남이 처한 상황을 “후진성과 식민지화의 뒤틀림(歪み)을 짊어지고 열심히 근대화의 길을 열어가려고 하는 그들의 필연적인 현실”(p.97)이라고 하면서, 이와와 같이 덧붙이고 있다.

“같은 아시아인으로서는……”라는 말을 일본인은 매우 쉽게 사용하는데, 식

민지화의 경험이 없고 구미 선진국의 사고방법과 제도의 섭취에 우등생인 일본인이 신흥독립 제국(諸國)의 정세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간단한 것은 아니다. 미국인들이 아시아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가볍게 비웃기 전에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떠한지 새삼 마음을 비우고 반성하는 동시에, 새로운 인식과 보도의 방법론을 몸에 익히는 노력을 일본의 보도자들은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pp.97-98)

일본이 아시아에서 근대화에 가장 빨리 성공했다는 우월의식에 기반하여 근린 동아시아 국가를 침략한 역사를 정당화해 온 제국주의시대의 논리가 히노의 인식에 그대로 답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에 일본의 정치적 독립과 안정을 우선시한 미국의 아시아 전략 변화에 편승한 일본이 전쟁책임이나 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리는 만무하다. 전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폄하된 아시아와 우월한 일본 사이에 미국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 보도』에서 객관적인 보도와 정확한 기술을 일관되게 강조하면서 베트남 사람들과 미국인을 자못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시각을 역설하고 있지만, 정작 베트남의 분단과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일본이 왜 제삼자로 빠져 있는지에 대한 작자의 자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껏 아시아를 잘 몰랐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나는 미국인을 바라보는 베트남 사람들의 눈을 주의 깊게 자주 봤다.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면 베트남 사람들은 저자세로 얌전한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이야기가 끝나고 일어나 가는 미국인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 그들의 눈에는 험악한 빛이 있다.

미국의 달러와 무기의 도움 없이는 해방전선과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원조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다. 한국인들 중에도 이러한 심적 경향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베트남 사람은 한국인과 비교하면 심리 구조의 차원이 두 개 정도 복잡한데,

나처럼 굴절된 마음을 가진 인간은 베트남 사람의 마음의 굴절을 뼈저리게 잘 알 수 있었다.

나쁘게 말하면 실력은 없는 주제에 자존심만 센 것이고, 좋게 말하면 물리적으로는 약해도 내심 긍지는 높다는 것이다. 이는 이데올로기보다 뿌리 깊은 것이다.(중략)

베트남 사람은 심리의 음영(陰影)과 굴절의 깊이에 있어서 실로 매력적인 민족이라고 새삼 느꼈다. 단순한 성공자인 미국인들은 아마 짐작할 수 없는 마음의 뒤틀림, 균열의 깊은 어둠일 것이다.(pp.137-139)

기본적으로는 한국과 함께 베트남을 폄하하고 있는 내용인데, 베트남 사람이 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느낀 “굴절된 마음”을 단순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마음의 굴절”, “심리의 음영”, “균열의 깊은 어둠”과 같은 내면의 복잡한 감정을 발견하고, 이러한 베트남 사람들의 복잡한 감정을 “매력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곧 베트남 사람들에게 비춰진 일본인 자신의 굴절된 내면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히노가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의 굴절을 자신의 내면에 투사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베트남 사람들이 미국의 군사원조를 받아 전쟁을 치르면서도 자신들의 전쟁이 타인의 것이 되어가는 것에 대한 냉소적인 무관심과 동시에 불안을 보이는 굴절된 마음을 통해, 히노는 전후 일본이 주권을 회복한 후에도 미일안보조약을 유지하며 자국의 안보를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새삼 돌아보고 베트남 사람들이 보인 것과 비슷한 모순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이에 대하여 상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히노는 전후 일본사회와 과거에 일본이 일으킨 전쟁, 그리고 역사의 변화에 대하여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무자각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것(시내의 상공에 떨어진 조명탄-인용자주)은 역사의 심연의 어두운

웅덩이를 비추는 탐조등의 빛처럼 보였다. 급격한 각도로 휘어지려고 하는 역사의 저류 심부의 움직임 곁에 서 있는 자신을, 나는 일종의 감동과 함께 의식하면서 일찍이 12월 8일에도 8월 15일에도 역사의 수면의 나뭇잎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완전히 농락당한 굴욕감이 새삼 되살아났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증얼거렸다 — 지금은 달라, 역사의 흐름의 어두운 심연을 나는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에는 속지 않겠다. 설령 이 동란이 아시아 전역에 퍼지는 일이 있다고 해도 이번에는 나는 알면서 죽을 수 있을 것이다.(p.121)

주지하듯이 12월 8일과 8월 15일은 일본의 태평양전쟁 개전일(開戰日)과 패전일(敗戰日)이다.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또 전쟁에 패한 격동의 역사에 자신이 무자각했음을 “농락당한 굴욕감”으로 표현하며 역사의 주체적인 삶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다. 히노 게이조와 같은 시기에 아사히신문사(朝日新聞社)의 베트남전쟁 취재로 현지에 가 있었던 가이코 다케시(開高健)는 히노의 『베트남 보도』의 머리말에 부친 「통각으로부터의 출발(痛覚からの出発)」에서 “일본인은 아시아를 모른다고 하는 통각”에서 히노의 문학이 출발했다고 언급했는데<sup>17)</sup>, 가이코 다케시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히노의 ‘통각’은 아시아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하여 일본이 치른 전쟁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자신의 주체적인 삶에 대한 자각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인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히노 게이조가 상정하는 일본의 전쟁은 태평양전쟁에서 시작하고 끝이 나 있을 뿐, 일본이 아시아에 대하여 벌인 전쟁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그가 베트남전쟁을 통해 아시아를 인식하고 일본의 전쟁에 대한 자각을 새롭게 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그 한계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전술

---

17) 開高健, 「痛覚からの出発」, 『ベトナム報道—特派員の証言』, 現代ジャーナリズム出版会, 1966, p.2.

한 바와 같이, 히노는 베트남전쟁을 체험하고 나서 느낀 현실적 감각을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쓰고 싶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여 착수한 초기 소설에서 그가 자기주체적인 삶을 인식해 가는 모습이 그려진다.

#### 4. 귀환 체험과 부정과 상실의 문학

히노 게이조의 첫 소설집 『돌아갈 수 없는 여행(還れぬ旅)』(河出書房新社, 1971)에는 세 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표제작 「돌아갈 수 없는 여행」(『文芸』 1970.7)과 「돌아오지 않는 여름(めぐらざる夏)」(『文学界』, 1970.10), 「잃어버린 길(喪われた道)」(『文芸』, 1971.5)이라는 작품이다. 세 작품의 제명에서 부정형과 상실의 표현이 눈에 띈다. 「돌아오지 않는 여름」과 「잃어버린 길」의 제명에는 패전의 충격과 전후의 폐허의 단상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작자의 내면이 투영되어 있다. 특히, 표제작 「돌아갈 수 없는 여행」은 패전 직후에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으로 귀환한 체험을 연상시키는데, 작중 세계는 전중의 조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돌아갈 수 없는 여행」은 전시 하 식민지 조선의 군수물자 만드는 병기공장에 동원된 소년 ‘나(ぼく)’의 이야기로, 히노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나’는 ‘본토’인 일본의 “시계탑이 있는 고등학교”의 문과에 입학하려고 궁리하지만, 입학허가통지서를 받고도 출항선이 결항되고 시일도 넉넉지 않아 결국 일본으로 건너가지 못한다. 그리고 병기공장으로부터도 벗어나지 못한 채 패전을 맞이한다. ‘나’는 입학허가서는 받았지만 꿈꿔 온 목적지가 도달 불가능한 실재하지 않는 비현실의 세계임을 깨닫고, 자신이 만들어 온 “시계탑이 있는 고등학교”의 허상을 무너뜨린다. ‘나’가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작품의 결말은 패전 직후에 일본인의 집단적 체험으로서의 귀환을 중첩시켜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야마네 시게키(山根繁樹)는 ‘나’를 자기 존재를 어디에도 자리매김할 수 없는 ‘고향상실자’로 단정 짓고 있는데<sup>18)</sup>, 귀환자 서사에 상투적으로 나오는 아이덴티티 논의와 함께 ‘고향상실’의 결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만약 귀속되어야 할 귀착지로서의 ‘고향’을 전제하고 있다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한자 ‘귀(歸)’를 쓰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그런데 ‘환(還)’은 ‘귀’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미를 갖는 글자이다. 즉, 여러 과정을 거쳐 근원적인 곳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가 ‘환’이라는 글자에 담겨 있다. 이에 대하여 작자가 의식적이었는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붙인 제명인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히노가 종종 ‘돌아간다’는 의미에 ‘환’을 쓰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환’이 근원적인 곳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라고 했을 때, ‘근원(根源)’은 반드시 ‘기원(起源)’으로서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작자가 돌아가려고 하는 ‘근원’을 의식하고 이 글자를 썼다면, 그의 초기 평론 활동에 나오는 제삼의 추상적인 공간으로 가정한 인식상의 문제로 접근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나’가 느끼는 상실감은 돌아가야 할 장소로 돌아가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돌아갈 근원이 어디인지를 모르거나 규정할 수 없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처럼 돌아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나’의 내면의 혼란에 대하여 귀향에 실패한 자가 갖는 상실감으로 단정하는 것은 지극히 정형화된 논리이다. 히노의 작품에 보이는 존재의 상실감은 수렴되고 귀속되어야 마땅한 곳으로서 국가나 민족과 같은 개념을 전제하는 국민국가의 논리에서 나온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히노가 형상화한 ‘근원’은 소설 속에서 경계가 무화된 공간으로 형상화된다.

18) 山根繁樹, 「還れぬ旅論—存在証明を超えようとする自己—」, 『近代文学試論』 29, 1991.12, p.44.

히노 게이조가 1972년에 발표한 「무인지대(無人地帯)」(『文学界』1972.5)는 한반도의 DMZ 비무장지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한국과 북한, 일본과 같은 경계 지어진 고유명사가 빈출하고 서울 거리의 묘사도 상세하다. 일본으로 귀환한 지 15년 만인 1960년에 신문사 특파원으로 서울에 체재한 히노 자신의 체험에 바탕을 둔 작품이다. 작중인물 ‘나’가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마을로 취재하러 가서 그곳에 있는 한 여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는 내용이다.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는 해설 「바다 건너편에서 전화는 계속된다(海の向こうで、戦火は続く)」에서, “식민지시대에 식민자의 아이로서 조선에서 지낸 일본인 남성과, 조선전쟁의 참화로 갈 곳을 잃은 한국인 여성과의 기묘하고 신비로운 만남. 거기에 있는 것은 조선과 일본의 근대에 있어서의 매우 불행하고 부조리한 관계 그것이었다”고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있다.<sup>19)</sup> 과연 근대 일본과 아시아 문제의 관련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그답게 정연한 요약정리이다. 그런데 ‘나’의 내면은 시종 상세히 서술되고 있는 반면에, 여자의 이야기는 ‘나’와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만 제시되고 그 외에 여자의 내면이 직접 조점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나’와 여자를 통해 일본과 조선의 “매우 불행하고 부조리한 관계”를 읽어내는 것은 다소 억지이다. 그보다는 ‘나’의 의식의 변화에 주목하여 읽을 필요가 있다.

화자는 ‘비무장지대’의 장소성에 대하여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땅”,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어디도 아닌 곳”, “텅 빈 지대(からっぽの地帯)”, “어느 나라도 아닌 그 지대”, ‘무인지대’ 등과 같이 다양하게 표현을 바꿔가며 반복해서 지칭한다. 이들 지칭에 공통된 이미지는 구체적인 사상(事象)으로 채워

19) 川村湊, 「解説 海の向こうで、戦火は続く」, 浅田次郎他編, 『コレクション 戦争と文学1 朝鮮戦争』, 集英社, 2012, p.655.

져 있거나 경계선으로 구획된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비무장지대의 장소성은 ‘나’의 내면의 공백을 대변해준다. 비무장지대를 찾은 ‘나’는 “공동(空洞) 같은 것이 내 안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돌아가고 싶은 장소가 없는 ‘나’가 국적이 없다고 하는 여자와 만나는 설정은 매우 상징적이다.

15년 만에 서울을 찾은 ‘나’는 총독부가 있던 곳이나 자신이 살았던 동네를 둘러보는데, 전쟁의 상흔은 남아 있지만 크게 변하지 않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인 것을 확인한다. 그러나 옛날 기억은 희미한 느낌뿐이고, 분명한 형태로 되살아나는 명확한 기억은 없다. 그렇다면 귀환하고 나서 다시 서울을 방문할 때까지 15년간 일본에서 지낸 생활이 자신의 시각을 바꾼 것인지 자문해 보지만, 일본으로 돌아간 이후의 생활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影)’에 지나지 않았다고 회고한다. 또 서울을 다시 찾은 지금도 그리운 추억의 소회는 느껴지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불안감을 느낀다. 이윽고 ‘나’는 그 이유를 깨닫는다. 과거에 조선에서 지낸 기억은 패전한 날의 잔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선명하게 환기시킬 수 없는 기억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문득 학교의 창문에 반사되어 비추던 햇빛의 기억이 떠오르며, 짓눌린 듯이 괴롭게 닫혀있던 마음 안쪽을 비춰주는 느낌을 받는다.

육안이 비추는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화단의 눈에 비친 중앙우체국의 그림자가 조금 전보다 조금 이동한 정도이고, 자동차는 눈 녹은 흙탕물을 튕기며 로터리를 지나고 사람들은 보도를 흘러간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은 이상하리만치 밝고 매우 조용했다. 기억의 내용이 내 마음을 꼭 밝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명한 공간이 내 자신의 의지와 예감에 반(反)하여 불시에 내 안을 일순간 통과해 지나간 그 순간 자체의 반짝임으로 생각되었다. (중략) <인간은 사실은 간혀있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상념이 예리하게 번쩍었다. 국경 같은 틀은 물론이고, 현재라고 하는 틀, 그에 대응하는 의식의

형태조차 묶여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틀을 뚫기 일순간 통과해 지나갈 때, 이와 같은 열린 기분이 되고 실감 같은 것이 돌아온(還ってくる) 기분이 드는 것임에 틀림없다.<sup>20)</sup>

위의 인용은 ‘나’가 비무장지대에서 국경이나 시공(時空)의 틀을 벗어나 의식이 자유로워지는 기분을 느끼며 지금껏 마음의 안쪽을 무겁게 누르고 있던 패전의 괴로운 기억으로부터 벗어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화자는 시간과 공간을 경계 짓는 틀에서 벗어나는 순간, “돌아온 기분”이 들었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환(還)’이라는 한자를 쓰고 있다. 시공의 경계를 무화시킴으로써 의식을 제한하는 틀에서 벗어난 경지가 바로 “돌아온” 상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 호텔로 돌아온 ‘나’는 책상에 앉아 “다시 한 번 여기(서울-인용자주)에 와서 좋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해협 건너편에 고향이 있는 듯한 기분으로부터 언제까지나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고 가타카나(カタカナ)로 타이핑을 하면서, ‘고향’이라는 말도 ‘KOKYOO’라고 치면 슬픈 감정이 빠져 저항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고향’이라는 말이 갖는 이미지에서 향수(鄉愁)의 감성을 소거하는 ‘나’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와 같이 ‘나’는 내면의 갈등이 해소되고, 자신을 속박하고 있던 경계를 무화시켜 귀속되어야 할 장소로서의 ‘고향’이 있다는 환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고향’의 환상성을 부정하면서도 끊임없이 돌아갈 근원을 추구하는 자체가 이러한 경계와 환상에서 쉽게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가 경계 탈출에 성공한 것은 ‘비무장지대’라는 특수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종의 일탈이었는데도 모른다. 「무인지대」 이후, 히노는 일련의 ‘사소설’을 통해 현재의 자신과 귀환

20) 浅田次郎他編(2012), pp.274-275.

체험, 그리고 식민지 조선에서의 기억의 왕복을 반복하며 새로운 공간을 모색한다.

## 5. 부유하는 사람들과 경계의 ‘집’

히노 게이조의 두 번째 소설집 『차안의 집(此岸の家)』(河出書房新社, 1974)에는 네 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자필연보에서 “자기구속적인 사실적(寫實的)·사소설(私小說)적인 연작”<sup>21)</sup>이라고 말한 대로 작자의 실생활에 기초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표제작 「차안의 집」의 제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고향’이라는 추상적이고 근원적인 개념보다는 ‘집’이라는 현실 공간에 밀착하여 귀환 후의 가족생활을 담아내고 있다. 그중에서 「남길 수 없는 말(遣しえぬ言)」(『季刊芸術』 25号, 1973·春)과 「구름다리(雲の橋)」(『文芸』, 1974.2)는 1945년 11월에 일본으로 귀환하여 아버지의 고향인 히로시마 현 후쿠야마 시에 정착했을 때의 힘든 생활이 주로 그려져 있다.

전쟁 말에 해협 저쪽 땅에서는 두 주일에 한 번씩 학도 동원의 병기창 합숙소에서 집에 돌아갈 때마다 전차 정류장에서 달려가듯 길을 서두르곤 했는데, 해협을 건너 가족은 그대로 귀환해 왔으나 내게 집은 없었다.(「남길 수 없는 말」, p.141)

‘귀환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남아도는 놈들이 기어 돌아와서” 하는 듯한 짓궂고 고약한 느낌을 몇 번이나 맛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새삼 상기하기도 했다(「구름다리」, p.182)<sup>22)</sup>

---

21) 日野啓三(2017), p.254.

22) 日野啓三 作, 印泰星 譯, 『그 저녁놀 외3편』, 중앙일보사, 1975. 이하, 두 번째 소설집에 수록된 작품의 인용은 모두 이 책에 의하고, 본문에 작품명과 쪽수를 명기한 다. 단, 오래 전에 나온 책이어서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부분 수정하여 인용함.

「남길 수 없는 말」과 「구름다리」는 귀환자에 대한 일본인의 차별적인 시선과 어머니의 우울증,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귀환 직후의 생활이 힘들었다고 회상하는 이야기로, 위의 인용을 통해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나’는 도쿄로 대학을 가면서 히로시마에는 거의 가지 않게 된다. 즉, 귀환 후에 정착한 아버지의 고향 히로시마는 ‘나’에게 고향의 이미지를 갖는 귀속의 장소가 아닌 것이다. 더욱이 ‘귀환자’에 대한 차별적이고 냉혹한 시선 속에서 조선보다 더 이향(異郷)으로 느껴질 정도로 귀환 후의 힘든 생활이 그려져 있다. “귀환해 왔으나 내게 집은 없었다”는 말에서 ‘집’은 정착할 공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표제작 「차안의 집」(『文芸』, 1973.8)은 주목할 만하다. 일본인 ‘나’가 한국 여자와 재혼하여 낳은 아들과 함께 도심의 고층맨션에 살고 있는 세 명의 가족 이야기인데, 이 작품으로 히노 게이조는 1974년에 아쿠타가와상(芥川賞) 후보에 올랐고, 히라바야시다이코문학상(平林たい子文学賞)을 수상하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차안의 집」의 주요 장면을 살펴보자.

- ① 그(아내의-인용자주)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녀가 태어난 땅의 자락이 긴 흰옷 입은 여자들이 머리 위에 향아리나 큰 명태 다발을 이고, 허리께로 교묘하게 균형을 잡으며 유유히 길을 걷고 있던 먼 기억이 짙은 감정 속에 조그맣게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황토길 양쪽에서 무수한 작은 삼각형 잎을 달고 솟은 포플라 가로수가 바람에 흰 잎 속을 뒤집으면서 살랑살랑 부드럽게 마른소리를 내고 있는……

그녀가 태어난 땅은 패전으로 귀환하기까지 내가 소학교와 중학교 시절 거의 십 년 동안 자란 땅이었다.(p.21)

- ② 태어나 자란 땅을 떠나서 마음속의 자연스런 어떤 것을 상실한 아내의 불안정한 피가 그대로 (아들에게-인용자주) 전해진 듯한 느낌이 든다.(p.24)

③ 그러나 시(市, 경성을 가리킴-인용자주) 그 자체는 이미 외국이었다. 산 중턱의 신사는 불태워 없어졌다. 도리이(鳥居)는 동강이 나서 나뒹굴었다. 사람들은 과거의 가혹한 통치에 대해, 그리고 지난 동란의 특수(特需)로 돈을 번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관동대진재(關東大震災) 때 형을 학살당했다는 사람에게서 “복수로 너를 때려죽이겠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었다. 해협이 어느 기슭에도 ‘돌아갈’ 곳은 이미 없었다…….(p.30)

‘나’는 식민지 조선에서 귀환한 자신과 일본에 와서 재혼한 한국인 아내 모두 한 곳에 뿌리내리지 못한 부유(浮遊)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도 “불안정한” 나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패전과 귀환의 체험, 그리고 조선에서의 기억이 겹친다. 그런데 신문사 특파원으로 방문한 서울의 모습은 과거에 자신이 살았던 기억의 장소가 더 이상 아니었다. 위의 인용 ①과 ③에서 보듯이, 서울이 과거의 경성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음을 ‘나’는 느낀다. 과거에 식민지로서 생활한 낭만적 기억의 장소는 사라지고, 일본의 가혹한 식민통치에 대한 한국인의 반감을 마주하게 된 ‘나’는 “해협의 어느 기슭에도 ‘돌아갈’ 곳은 이미 없었다”고 탄식하고 있다.

차은정이 일본인 귀환자에 대하여 “귀환 전의 자신의 존재적 의미를 묻지 않는 전후 일본사회에서도, 귀환 전에는 자신의 존재적 의미를 가졌으나 귀환 후에는 자신에게 더 이상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한국에서도 자신의 존재적 실체를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마음의 고향’은 그들의 “기억이 지속적으로 만들어낸 실천의 결과”라고 지적한 대로<sup>23)</sup>, ‘나’는 전후 일본에서도 또 해방된 한국에서도 자신의 존재적 의미를 찾지 못하고 돌아갈 곳이 없음을 탄식하고 있는 것이다. 전후 일본인 귀환자의 심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

23) 차은정, 『식민지의 기억과 타자의 정치학-식민지조선에서 태어난 일본인들의 탈향, 망향, 귀향의 서사-』, 선인, 2016, p.349.

목이다. 이윽고 ‘나’는 두 사람 모두 자란 곳이 아닌 ‘타향’에서 새로운 생활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결심하고 도심에서 생활한다. 그리고 부유하는 사람들이 가족을 이룬 현재의 이 ‘집’이야말로 자신이 돌아갈 근원의 장소라는 인식에 도달한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집’은 특정한 귀속의 장소가 아니라,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의 장소로서 새로운 관계성을 통해 생성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선 「무인지대」의 공간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차안의 집」에 이어 1975년에 발표한 작품 「그 저녁놀(あの夕陽)」(『新潮』 1974.9)로 히노 게이조는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하였다. 「그 저녁놀」은 ‘나’가 특파원으로 서울에 부임하여 한국 여자 ‘미스리(ミス李)’와 만나면서 그녀가 일본 여자와 다르다고 생각하고, 일본으로 돌아가 현재의 일본인 아내와 이혼을 준비하는 이야기이다. 재혼한 후의 이야기인 「차안의 집」을 먼저 발표하고, 일본인 아내와 이혼하기 전의 이야기 「그 저녁놀」을 나중에 발표한 것이다.

「그 저녁놀」에는 아내와의 이혼문제가 중심으로 그려지는데, 그 외에도 귀환 직후 히로시마에서 힘들었던 생활과 식민지 조선에서의 기억을 조금씩 상기하는 장면도 삽입된다. 주인공 ‘나’는 서울에 다녀온 이후에 일본인 아내 레이코(令子)와 이혼할 결심을 굳히는데, ‘나’가 레이코에게 ‘내지인(内地人)’ 느낌을 강하게 느낀다고 하면서 위화감을 표현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왜 위화감을 느끼는지, 또 어떤 성격의 위화감인지 구체적인 묘사는 없다.

서사의 구도나 작중인물의 내면 묘사를 보면, 「그 저녁놀」이 「차안의 집」보다 완성도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안의 집」은 아쿠타가와상 후보에 머물렀고, 「그 저녁놀」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본래 출판 저널리즘은 작품의 완성도만으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인이 작용하여 문학상 수상작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

럽다. 다만 선평을 통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저녁놀이」에 대한 아쿠타가와상의 선평<sup>24)</sup>에서 나카무라 미쓰오(中村光夫)는 주인공의 마음의 움직임에 순순히 따라갈 수 없다고 작품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고백이 문학작품으로서 완성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비판했는데, ‘나’와 아내의 갈등과 심리의 변화가 과거 기억의 편린들과 섞여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일인칭의 사소설이라고 하더라도 초월적인 위치에 다른 심급의 ‘나’를 두고 과거의 ‘나’의 기억과 현재 사이의 갈등, 그리고 심리적 변화를 재구성하여 그리면 될 터인데, 현재의 ‘나’가 기억이 떠오르는 대로 과거와 현재를 종횡하는 전개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비판이다. 또, 이노우에 야스시(井上靖)도 전체적으로는 평가하면서도 “제재가 소박하고 소설로서는 볼 만한 장면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반면에 야스오카 쇼타로(安岡章太郎)는 선평에서 “잃어버린 ‘식민지’의 고향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지”가 그려져 있고, 주인공이 거기에 자신의 ‘자아’를 가탁하고 있다고 하면서, 히노 게이조의 식민지 조선 체험에 바탕한 작품의 특징을 끄집어내어 평가하였다. 야스오카의 선평은 다시 말하면, 전후 일본인이 추억하는 제국 일본의 상실된 식민지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킨다. 물론 잃어버린 것에 대한 노스텔지어로서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나’의 기억이 그려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야스오카의 선평대로 잃어버린 고향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지의 차원에서 읽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가와무라 미나토도 ‘조선’을 히노의 “정신의 원풍경적인 것”<sup>25)</sup>이라고 말했는데, 히노를 비롯하여 일본인 귀환자의 기억에 식민지 조선에 대한 향수는 어느

---

24) 아쿠타가와상 수상작 선평, <https://prizesworld.com/akutagawa/jugun/jugun72HK.htm>(검색일: 2021.4.15.)

25) 가와무라 미나토 지음, 유숙자 옮김, 『전후문학을 묻는다—그 체험과 이념—』, 小花, 2005, p.93.

정도 공통적으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학은 집단의 역사적 체험에서 오는 공통의 기억과는 별개로, 개별적으로 감수(感受)하여 기억하는 차원을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나 내레이션 너머의 표현의 심급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저녁놀」에 대한 야스오카 쇼타로의 선편은 텍스트에 그려진 개별적인 차원의 기억보다는 전후 일본의 정형화된 식민지 표상과 귀환서사의 레토릭을 대입하여 평가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그 저녁놀」은 식민지 조선에서의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일본인 아내에게 느끼는 위화감, 이혼, 그리고 한국인 여성과의 재혼을 암시하며, 유동적이고 부유하는 ‘나’의 내면을 초점화해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그런데 「차안의 집」과 「그 저녁놀」 모두 유동적이고 부유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점이 있다. 「그 저녁놀」이 ‘나’의 심리를 초점화하여 부유하는 인간의 내면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데 반하여, 「차안의 집」은 부유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집’이라는 장소가 부각되어 있다. 즉, 귀환자의 정체성을 내면의 심리로 보여주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에 속해 있지 않은 ‘집’이라는 경계의 장소를 방법화한 점이 특징적이다. 오쿠이즈미 히카루(奥泉光)가 히노 게이조를 “모더니즘의 작가”<sup>26)</sup>라고 언급한 것도 바로 이러한 문학적 방법의식을 평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히노가 초기부터 갖고 있던 ‘허점’의 사상이 「무인지대」의 공간 인식을 거쳐 「차안의 집」의 부유하는 경계의 장소로 형상화된 것은 전쟁과 식민의 기억을 왕복하며 계속된 이동이 새로운 관계성의 구성을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차안의 집」에서 과거 식민지 조선에서 귀환한 일본인 ‘나’와 한국에서 지내다 일본으로 건너온 아내 둘 다 서로 자란 곳이 아닌 일본의 도심에서 새

---

26) 奥泉光, 「開高vs日野」, 『日本文学全集21 月報(2015.8)』, 河出書房新社, 2015, p.2.

로운 생활을 만들어가는 현재의 집은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안정적인 완성된 공간이 아니다. 아내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검사를 받는 장면에서도 이러한 불안정한 모습이 보이는데, ‘차안의 집’이라는 제목이 상징하듯이 그림에도 현재의 공간에서 새로운 집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통해 부유하는 사람들도 달한 장소가 귀속이 아닌 새롭게 만들어가는 생성되는 공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6. 맺음말

이상에서 히노 게이조가 베트남전쟁을 취재하고 돌아와 소설을 쓰기 시작하며, 일본의 패전과 귀환체험, 그리고 식민지 조선의 기억과 조우하는 과정에서 전쟁과 식민의 기억이 새롭게 환기되고 형상화되는 방식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히노 게이조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식민지 조선으로 이주하였고, 패전 후에 일본으로 귀환, 1960년대에 다시 서울로, 그리고 베트남전쟁 취재를 위해 특파원으로 두 차례 베트남을 다녀오는 등, 그의 이력에 이동이 계속된 점이 특징적이다. 그 영향으로 그의 문학은 이동에 따른 상대적인 장소성과 부유하는 인간의 존재적 문제에 천착하는데, 다른 귀환자 문학과는 다르게 내면의 정체성이나 귀속의 장소로 수렴되지 않고, 주체와 공간 사이의 경계의 확장과 새로운 관계성의 구성을 ‘집’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의 문학적 형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패전 직후의 단상에서 문학 활동을 시작하여 식민지 조선에서의 기억과 귀환 체험을 소설화한 초기작, 아쿠타가와상 후보와 수상작에 선정된 「차안의 집」과 「그 저녁놀이」에 이르기까지 작자 스스로 ‘사소설’이라고 언급한 일련의 작품 속에서 이러한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귀환’이라는 집합적 체험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방법과 그 의미는 작

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귀환자 문학’으로 한데 묶어 정형화된 표상을 재생산하는 레토릭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제국은 해체되었고 냉전의 시대를 지나왔지만, 전쟁과 식민을 둘러싼 역사적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히노 게이조의 문학이 ‘귀환’이라는 부(負)의 기억에 자칫 가려지고 은폐될 수 있는 전후 일본의 문제를 직시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지만, 계속된 이동이 만들어낸 식민지 조선에서의 기억 환기가 새로운 관계성의 공간으로 형상화된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21년 5월 8일

논문 심사일 : 2021년 6월 5일

게재 확정일 : 2021년 6월 14일

## 참고문헌

- 가와무라 미나토 지음, 유숙자 옮김, 『전후문학을 묻는다-그 체험과 이념-』, 小花, 2005.
- 신승모, 「고바야시 마사루 문학의 역사적 '가교'로서의 가능성」, 『재조일본인 2세의 문학과 정체성』, 아연출판부, 2018.
- 오미정, 「'귀환'체험과 기술의 문제-아베 고보 『짐승들은 고향을 향한다』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51집, 2010.12.
- 차은정, 『식민지의 기억과 타자의 정치학-식민지조선에서 태어난 일본인들의 탈향, 망향, 귀향의 서사-』, 2016, 선인.
- 日野啓三 作, 印泰星 譯, 『그 저녁놀 외3편』, 중앙일보사, 1975.
- 池澤夏樹 個人編集, 「向う側」, 『日野啓三 開高健』(『日本文学全集』 21), 河出書房新社, 2015.
- 奥泉光, 「開高vs日野」, 『日本文学全集21 月報(2015.8)』, 河出書房新社, 2015.
- 開高健, 「痛覚からの出発」, 『ベトナム報道-特派員の証言』, 現代ジャーナリズム出版会, 1966.
- 加藤聖文, 『海外引揚の研究-忘却された「大日本帝国」-』, 岩波書店, 2020.11.
- 川村湊, 「解説 海の向こうで、戦火は続く」, 浅田次郎他編, 『コレクション 戦争と文学 1 朝鮮戦争』, 集英社, 2012.
- 清岡卓行 外, 『昭和文学全集 第30巻』, 小学館, 1988.
- 日野啓三, 「年譜」, 『天窓のあるガレージ』, 講談社文芸文庫, 2017.
- 日野啓三, 『ベトナム報道-特派員の証言』, 現代ジャーナリズム出版会, 1966.
- 平田由美, 「“他者”의 장소-「半チョッパリ」という移動經驗-」, 伊豫谷登士翁·

- 平田由美編, 『「帰郷」の物語／「移動」の物語』, 平凡社, 2014.
- 藤原てい,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 日比谷出版社, 1949.
- 山根繁樹, 「還れぬ旅論—存在証明を超えようとする自己—」, 『近代文学試論』  
29, 1991.12.
- 山内祥史, 「近代文学」誌上の日野啓三—一九五一年まで—, 『近代文学試論』  
48, 2010.12.
- 山内祥史, 「日野啓三・昭和二十七年の文業」, 『近代文学試論』 49, 2011.12.
- 아쿠타가와상 수상작 선평 <https://prizesworld.com/akutagawa/jugun/jugun72HK.htm>(검색일: 2021.4.15.)

Abstract

## Memories of war and colonization: Focusing on the literature of Hino Keizo

Gae-ja, Kim

This paper considers how Hino Keizo began writing novels after covering the Vietnam War, and analyzes that the memories of war and colonization are newly recalled and embodied.

Hino Keizo was born in Japan and moved to colonial Chosun in 1934. After Japan's defeat in 1945, he repatriated to Japan. In the 1960s, he visited Seoul again, and returned to Japan as a correspondent to cover the Vietnam War. As a result, his literature represents the relative topology by the continuous movement and the existence of floating people, showing the expansion of boundaries between subject and space. This characteristic composes new relationships, representing a literary embodiment of "home".

Hino Keizo's works from the early works to the series of autobiographical novels are created by continuous movement, representing the memories of war and colonization and symbolic of a new relativity and place of memory.

Key words

Hino Keizo, repatriation narrative, colonial Chosun, memory, Vietnam War, Akutagawa Prize

[www.kci.go.kr](http://www.kci.go.kr)